



주 제:	“서로 사랑하여라”	“부활 제 5 주일” (다해)	2007년 5월 6일
복음 묵상:	요한 13,31-33 13,34-35	사도 14,21 나-27	묵시 21,1-5 1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나만의 만족을 위한 사랑도, 상대방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래를 손바닥 위에 얹어 놓고서 손바닥을 편 채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지요. 하지만 꼭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고 손바닥에는 조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면 사랑은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소유욕으로 서로를 꼭 움켜쥐면, 사랑은 어느새 두 사람 사이를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꼭 움켜잡으려던 사랑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성가대 소식

1. 금주부터 30 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곡목은 김희조 편곡 “응혜야” 인 우리 민요입니다.

2. 가족 동정

-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4/24 2 주간 여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 4/24 일 3 주간의 여정으로(5/15 도착예정)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 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5 월 15 일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 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 최 창식 세바스찬님(최엘리사벳 시부님)께서 팔순을 맞으셨습니다. 축하 드리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빌어주십시오.

+ 복음 [요한 13,31-33 13,34-35]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어머니의 마음 ♡



"내가 저리 되든, 꼭 요양원에 보내도. 괜히 불효 어짜고 하지 말고. 요양원에 보내 주는 거. 거기 진짜 효도 하는 기라. 치매 환자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엉망진창 되기는 시간 문제라 카더라.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부모는 부모 데이. 부모 가슴에 자식은 평생 애물단지일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한테 애물단지가 되든 안 되제. 거기 바로 부모인기라."

며칠 전. MBC 일일 드라마인 <나쁜 여자 착한 여자>를 한참 재미나게 보시던 어머니께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다. 극중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어머니 말씀에 무어라 대꾸를 하긴 해야겠는데 순간. 가슴이 멍멍해졌다. 치매? 내 어머니가 치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일흔을 넘기고 예순을 넘기신 네 분 부모님. 자식된 입장으로 당연히 치매란 병에 대해 한 번쯤 걱정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무심했었다. 아니, 무심했었다는 건 사실 핑계이고 그 두려움을 애써 회피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내 어머니께서는 이미 치매로부터의 단단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런 어머니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그러나 많은 경우 어머니의 희생과 고마움을
머리로서는 알면서도
잊고 살아갑니다.
성모님의 성월을 맞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항상 전구하고 계신 성모님을 특별히 기억하여야겠습니다.

☆ 기 도 ☆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여도
자꾸만 욕심 사나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어
상대방을 힘들게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항구히 사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